

# 開 會 辭



존경하는 협회 원로님, 그리고 협회 제4기 임원으로 선출되신 집행부와 각 위원회 위원님!

오늘은 지난 2월 28일 제10차 정기총회의 의결에 따라 앞으로 3년 동안 우리협회를 이끌어 가실 제4기 집행부가 공식적으로 발족되고, 또한 운영위원회 등 12개 위원회가 구성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회원의 권익신장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임원과 위원의 위촉 요청을 흔쾌히 수락해 주신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정기총회에서 저를 제4대 회장으로 연임시켜주신 회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3년 동안 제3대 회장으로서 전기인의 권익신장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미진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회 임·직원들과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밖으로는 우리협회의 오랜 숙원사업 이었던 “협회회관”의 마련과 전력기술진흥대회 개최, 국제 전력전자 및 전기설비전 개최, “전기인의 날” 선포 등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안으로는, 적지 않은 흑자를 달성하여 협회 재정의 내실을 기하였고 회원에게 한발 더 다가서서 봉사하는 협회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제4기 집행부가 출범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동안 회원의 권익신장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더욱 전진해 나갑시다.

먼저, 협회의 위상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협회 내 각 위원회를 활성화시켜 협회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토록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회원이 되고, 힘 있는 협회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 친애하는 임원 및 위원회 위원 여러분!

우리에게 내일은 열려 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 합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큰 뜻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

끝으로, 오늘 참석해 주신 임원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4. 18

한국전력기술인협회장 이 희 평